

농촌진흥청, '2026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경진 공모

- 원예·특용작물 재배·생산 중인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 9월 4일까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 11월 시상 예정...대상 1곳 국무총리상 및 상금 수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원예·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재배 기술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4일까지 '2026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경진 공모에 나선다.

기존에는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육성한 품종을 재배하는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단지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원예·특용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며 출하·유통 중인 생산단지로 확대했다.

단, 최근 3년 이내 본 공모에서 최우수상 이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 생산단지는 제외한다.

참여 방법은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에서 '정책홍보-새 소식-공지 사항'에 올라온 '2026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경진 계획'의 첨부 파일을 내려받아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재배단지가 속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9곳의 생산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1개소)에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만 원을 수여한다. 최우수상(3개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

상(5개소)은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 70만 원을 각각 준다. 시상식은 11월 농촌진흥사업 종합 평가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장기창 기술보급과장은 “고품질의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재배단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나라 농산물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높여가기 위한 기술적 뒷받침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6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경진 추진 계획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책임자	과 장	장기창 (063-238-0970)
	기술보급과	담당자	지도사	장진경 (063-238-0982)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추진 개요

- 대상 품목: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 참여 대상
 - 원예·특용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여 출하(유통) 중인 생산단지
 - * 도 별 3개 단지, 특·광역시에서는 1개소 추천
- 추진 절차

신청 및 서류제출	도 심사 및 청 추천	중앙 심사 및 최종순위결정
9. 4.까지	9. 11.까지	9~10월
신청기관 → 도농업기술원 * 특·광역시는 청으로 직접 제출	도원→농촌진흥청 * 도별 심사를 통해 순위 결정 후 3위까지 추천(붙임 4)	중앙심사(서류, 발표) * 최종순위 결정: 1차(서류, 40%) 9개 단지 선정, 2차(발표, 60%) 에서 순위 결정

시상계획

- 시상점수: 9점(대상 1, 최우수상 3, 우수상 5)

구 분	훈 격	상금(천원)
대 상 (1점)	국무총리	1,500
최우수 (3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000
우 수 (5점)	농촌진흥청장	700

- 시상 시기: 농촌진흥사업 종합 평가회(11월 예정)
- * 위 시상 내용과 시기는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